

‘민자 유치’ 목포 삼학도 호텔 건립 사업 결국 무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사업협약 해지 처분 통보 부동산수익권증서 문제 등 사업 이행 위반사항 발견

목포시가 삼학도 호텔 건립 민간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사업협약 해지를 결정해 사업이 무산됐다.

박홍률 시장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삼학도호텔 건립 관련 사업협약 해지 결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1월 스키아원레저투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스키아원레저투와 컨소시엄 참여사(6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엘엔피에프비이유

와 같은해 4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홍률 시장은 “장고의 시간을 거듭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친 끝에 시는 이번달 9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실과 협의 중 삼학도가 제해취약 지구라는 점이 부각돼 민간사업자에게 방재(시설)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며 “총사업비 3천500억원의 5%인 175억원 상당의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한 부동산수익권증서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부동산수익권증서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69억원 정도의 자산가치로 평가돼 175억원 보다 10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사업자가 변경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담보물 157개 중 154개는 2순위권자로 설정돼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지 않아 즉시 반려됐다.

박 시장은 “기존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대체 납부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7차례 요청했음에도 민간사업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 밖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재무적 출처자의 금융약정서, 5성급호텔 유치 투자 관련 결정서 등 자료 요청에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목포시는 내부 검토·심의,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요



박홍률 목포시장이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학도 호텔 건립 사업협약 해지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청자료 미제출은 공모지침서·사업협약서 의무 불이행·협약 위반사항임을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최종 협약해지 처분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목포시의 설명에도 불구

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 협약 해지로 법적 공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대항로움을 선

임해 목포시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전망이다.

또 목포시가 지난 9일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시민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 추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한 의원은 “업무보고 시 대대수 의원들이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해 질문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며 “비중이 크고 관심 사항 업무는 계약해지 전에 의회에 보고해주면 더 좋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계약해지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 추진사항으로 의회 동의나 승인사항이 아니며,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해 다른 업무와 함께 보고를 추진했고, 기자회견은 기관장의 해외 일정 등이 있어 29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명현관 해남군수가 관내 전통시장에 방문해 해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톡톡’

발행 5년만에 누적 6천억 돌파...군민 10명 중 8명 사용

해남군의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 5년만에 6천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6천64억원의 누적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해남사랑상품권의 실사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만3천982명에 이르며, 이는 구매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군민 10명 중 8명이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군내 어디에서나 지역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할인 판매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되돌려 주면서 상품권 사용이 일상적인 소비 행태로 자리 잡게 됐다.

군은 적극적인 국·도비 유치를 통해 5년간 총 32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 할인

판매 행사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5-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혜택을 상승시켰다.

군은 올해 해남사랑상품권 1천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4-5월 해남사랑상품권 5주년을 기념해 10% 할인행사도 지속 중이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사랑상품권은 첫 발행부터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준 군민들이 있었기에 성공리에 안착됐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민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복용 기자

강진 서부해당화 축제 기간, 떡깨비 92% 매출 상승

평일 주문수 1천337건·주말 2천488건 기록 ‘성황’

강진군이 서부해당화 축제 기간 동안 공공배달앱 떡깨비를 활용해 전년 대비 92% 이상의 매출 상승 효과를 이뤘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에 맞춰 추진한 공공 배달앱 ‘떡깨비’의 특별 할인쿠폰 이벤트를 통해, 전년 대비 92%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핑크빛 봄의 미소’를 주제로 남미리사 일원에서 개최된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는 9일간 2만9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사람들이 몰리며 2시간의 차량 대기가 기본으로 이어지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다.

강진군은 축제기간 동안, 공공배달앱 ‘떡깨비’ 앱을 통해 1만5천원 이상

배달 주문 또는 포장 시 평일 5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평일 주문 1천337건, 3천300여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주말에는 기존 주말 3천원 할인 이벤트와 중복 사용이 가능한 2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말 주문 2천488건에 6천200여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번 떡깨비 특별 할인 이벤트를 통해 9일 동안 전체 주문 건수 1천864건, 매출액 9천592만2천원으로 전월 대비 1천864건, 4천600만원이 늘어 9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진원 군수는 “앞으로 추진될 군의 축제에도 공공배달앱 할인 이벤트를 통해 강진군 소상공인과 관내·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무안군, 갯벌낙지 보호수면 운영

무안군은 29일 “지역대표 수산물인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200ha)에 보호수면을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지난 2007년부터 전남도에서 지정함에 따라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 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안군에는 보호수면 기간을 활용해 낙지 목장 조성, 어미 낙지 방류 등 다양한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해 지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무안=김성호기자

완도군 ‘청정바다 보전’ 해양쓰레기 수거

30억 투입 7천600t 처리...바다 환경 지킴이 연중 운영

완도군이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30억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7천600t을 수거·처리한다. <사진>

2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 ‘깨끗해요! 건강해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선포하고 청정바다를 가꾸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0억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읍·면부터 순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방침이다.

또한 방치 선박 정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양식 어장 정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며, 조업 중 발생하는 폐부표나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바다 지킴이 365기동대’를 통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무인도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다 환경 지킴이’를 연중 운영해 해안가를 상시 청소한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해안가는 가장 정화선을 이용할 예정이다. /완도=윤보현기자

‘생활SOC 확충’ 영암군, 402억 규모 농촌협약 체결

영암읍 등 7개 읍·면 2028년까지 국비 282억 지원

영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총사업비 402억원의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8년까지 국비 282억원을 지원받아 영암읍 등 7개 읍·면 생활SOC를 확충한다.

농촌협약은 지역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 농촌지역 투자 유인 등을 위해 지자체가 농촌 공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암군을 포함해 전국 22개 시·군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사업관리를, 영암군은 농촌 공간 활성화 계획에 입각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2024-2028년 5년간 국비 282억원을 포함한 총 402억원으로 ▲중심지활성화사업-영암읍(130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덕진면(50억원),

신북면(60억원), 시종면(60억원), 도포면(60억원) ▲역량강화사업-금정면(20억원), 군서면(20억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지원사업(2억원)을 실시한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영암읍 생활권인 7개 읍·면에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체육·복지·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농촌지역 활성화, 생활 서비스 기능 강화 등에 나선다.

우승희 군수는 “농촌협약을 성공 추진해 영암 거점지역 개발, 지역공동체 강화, 농촌지역 활성화를 이루내고, 청년이 성장하는 청년기회도시, 전국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 수도로 영암을 건안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황금박쥐상’ 이전 상설 전시관 개관

함평추억공작소 미디어아트 체험 등 22개 공간 연출

함평군이 ‘황금박쥐상’을 품은 함평추억공작소’ 이전 신축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함평엑스포공원에 황금박쥐상을 품은 함평추억공작소를 제2회 나비대축제 개최에 맞춰 개관했다.

함평추억공작소는 지난 2020년 8월 호우 피해에 따른 옛 함평문화유물전시관의 항구복구 사업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한 것이다. 3년 6개월만에 완공했으며, 1960년부터 80년대의 생활상을 재현해 우리의 어린 시절을 되새기고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꾸며졌다.

내부에 들어서면 가장 인물인 ‘함기영’ 씨와 함께 22곳의 공간 연출과 3개의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새나라 학생사’에서는 옛적 상

품들을 직접 판매하고 ‘함평다방’에서는 미디어놀이체험과 함께 실제 차를 마시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함평극장’에서는 함평을 배경으로 한 영화 ‘나에게 오라’와 최초 상영작인 ‘자유만세’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관 입구에는 한국 협계 경유열차로는 최초인 함평협계열차를 재현해 방

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축제 시즌에만 한정적으로 공개됐던 함평의 대표 조형물인 ‘황금박쥐상’은 추억공작소 내로 이전돼 상설 전시하는 등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황금박쥐의 숨결을 오롯이 느낄 수 있게 했다.

‘황금박쥐를 찾아라! 코너에서는 화면의 황금박쥐를 터치하면 캐릭터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며 관광객에게 ‘함격, 부기, 다산, 장수’의 아이콘이 비춰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함평=김연수기자

